

장르극부터 코미디까지...올해도 K-드라마 빛낼 작품 쏟아진다

스튜디오드래곤·에이스토리, '빅마우스'·'괴이' 등 라인업 주목
넷플릭스·디즈니+, 최민식·김혜수 출연 드라마 대거 공개 예정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K-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올해도 수많은 작품이 쏟아진다.
6일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스토리가 공개한 올해 방영 예정 작품 목록을 보면 장르극부터 로맨스, 판타지, 코미디, 휴먼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포진해 있다.
또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배우 최민식이 26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로 화제를 모은 '카지노'부터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 등 톱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에이스토리에서는 배우 이종석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 '빅마우스'를 비롯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청와대 사람들' 등 6개 드라마를 내놓을 예정이다.
'빅마우스'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버린 변호사가 특관중 비리를 파헤치는 누아르 작품으로 '호텔 델루나'의 오창환 PD가 연출을 맡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해 드라마 '연모'로 KBS 연기대상 3관왕을 차지한 배우 박은빈이 타이틀롤을 맡아 IQ 164의 천재이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한다.
이외에도 대통령 가족의 일상을 다룬 정치 풍자 드라마 '청와대 사람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블랙 코미디 '유괴의 날', 교통범죄 수사극 '크라시', 웹툰 원작의 코믹 히어로극 '반투명인간' 등도 올해 시청자들을 만난다.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외에도 'SNL 코리아' 시즌 2와 3, 최연소로 세계 7대륙 최고봉에 오른 산악인 김영미 대장의 남극점 도달 도전기를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 '화이트아웃' 등을 제작·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센조' 박재범 작가가 집필한 SF 액션 드라마 '무당', 인기 웹툰 '340일간의 유예'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드라마 등도 올해 제작에 나선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3일부터 방영 중인 tvN 드라마 '고스트 닥터'를 시작으로 연상호 감독의 '괴이', 노희경 작가가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우리들의 블루스' 등 12개 작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교환·신현빈 주연의 '괴이'는 귀신 들린 불상이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괴이한 사건과 진실을 파헤치는 고고학자 이야기를 그렸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낸 휴먼 드라마다.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등이 출연한다.
사생활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서예지의 복귀작으로 이복이 불리는 '이브'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상위 1% 재벌의 이혼 스캔들



이병헌



이종석



김혜수



박은빈

내막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에는 서예지 외에 박병은, 유선, 이상엽 등도 출연한다.
이외에도 김태리·남주혁 주연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안보현·조보아 주연의 '군검사 도베르만', 연상호 감독의 동명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돼지의 왕' 등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강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 '지옥' 등으로 K-콘텐츠

열풍을 주도했던 넷플릭스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 이야기를 그린 '지금 우리 학교는',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 등을 시작으로 윤종빈 감독이 연출한 첫 시리즈 '수리남', 스페인 작품을 리메이킹한 한국판 '종이의 집', 김희애·문소리 주연의 '퀸 메이커' 등 다양한 작품을 쏟아낼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상륙한 디즈니플러스에서는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웹툰 작가 강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액션 히어로 스릴러 '무빙', 강다니엘의 드라마 데뷔작 '너와 나의 경찰수업',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의 신작 '그리드' 등을 선보인다.
'카지노'는 카지노의 왕으로 불리는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펼치는 내용을 담은 범죄 액션물로 최민식과 영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다.
디즈니+와 비슷한 시기 한국 시장에 진출한 애플 TV+에서는 영화 '미나리'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 윤여정의 후속작 '파친코'를 공개한다.
/연합뉴스



'킹메이커'



'해적:도깨비 깃발'

설 연휴 극장가는 한국 영화 대결...정치 vs 모험

'킹메이커'·'해적:도깨비 깃발' 26일 동시 개봉

설 연휴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 두 편이 대결을 펼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선거 전략가 엄창록을 모티브로 한 정치 드라마 '킹메이커'와 해양 어드벤처 '해적:도깨비 깃발'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6일 동시에 개봉한다.
앞서 설 연휴를 노리던 '비상선언'이 코로나19 재확산에 개봉을 잠정 연기하고, 지난달 개봉할 예정이던 '킹메이커'가 일정을 연기해 최근 개봉

일을 확정하면서 설 연휴 대진표가 완성됐다.
'킹메이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설경구 분)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장대(이선균)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목적과 수단의 정당함을 묻는 주제가 무거울 수 있지만,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유례없는 팬덤을 만들었던 변성현 감독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미장센과 과하지 않은 유머가 긴장을 풀어준다.

사극 액션 어드벤처 '해적:도깨비 깃발'은 2014년 여름 개봉해 800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작이다.
강하늘과 한효주가 의적단 두목 무차와 해적 단주 해랑 역을 맡아 고려 왕실의 마지막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모험을 펼친다. 여기에 이광수, 권상우, 오세훈(엑소), 채수빈 등이 함께한다.
연출을 맡은 김정훈 감독은 "전편이 성공했기에 부담감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며 "액션과 어드벤처를 더 사실적으로 담아 관객들이 관람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게 촬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BTS, 日 베스트 앨범 판매량 100만장 넘어

보아 이후 16년 만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일본에서 발표한 베스트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 서며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다.
6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주간 앨범 랭킹' 최신 차트에 따르면 'BTS, 더 베스트(THE BEST)' 음반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주간 3000장 판매됐다.
'BTS, 더 베스트'는 2017년부터 약 4년간 일본에서 낸 싱글과 앨범 수록곡 등을 모아 발표한 앨범이다. 이를 반영한 'BTS, 더 베스트'의 누적 판매량은 총 100만2000장으로, '주간 앨범 랭킹' 차트를 기준으로 100만 장 이상 팔린 14번째 해외 아티스트가 됐다.
BTS의 이번 기록은 국내 아티스트로서 의미 있는 성과다.
그간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오리콘 집계에서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한국 가수는 보아 뿐이었다.
'아시아의 별' 보아는 2003년 일본에서 발표한 2집 '발렌티'(VALENTI)와 2005년 베스트 앨범 '베스트 오브 솔'(BEST OF SOUL)이 각각 100만장 이상 팔린 바 있다.



BTS는 2019년 일본에서 발표한 싱글 '라이츠/보이 워드 러브'(Lights/Boy With Luv)가 100만장 이상 출하돼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밀리언'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100만장을 넘어섰다.
오리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BTS의 소식을 전하며 "앨범 부문에서 해외 아티스트가 밀리언(100만장) 기록을 달성한 것은 보아 이후 16년 7개월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남성 아티스트가 발표한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기록한 것은 2004년 밴드 퀸(Queen) 이후 17년 9개월 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포도에서 만납시다
진혜진 시집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